

## 채식을 아이들에게 까지?

### 1. 서론

최근 들어 채식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우 온실가스 배출량 0.9%뿐…학교급식 채식 강요는 잘못”

한 기사를 보면 한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한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7억톤)의 0.9%에 불과하다. 한우를 먹는 것을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 한우정책연구소 정승헌 소장은 지난 10월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식성에 불과한 육식을 마치 기후 위기에 무책임한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권장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학생들에게 채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시기에 맞춰 골고루 영양 성분을 섭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의 의견에 대해 관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건주의자나 환경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자들이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참 성장할 때인 청소년들은 고기를 먹어야 근육을 키우고 건강해질 수 있다. 산모와 노인들도 마찬가지다. 동물성 단백질을 매일 적정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또 우리나라는 소고기 자급률이 35% 밖에 안된다 . 65% 는 수입 소고기를 먹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국 내에서 소를 키우는 게 온난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정보들이 난무한다. 안타까운 일이다.”<sup>1)</sup>

- 한우 사육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건 맞지 않나?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적다 . 자동차 1대가 연간 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한우 1마리는 1.1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게 온실가스 감축에 더 효과적이다. 아이들에게 채식을 강요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 한우와 다른 나라 소를 비교하면?

“한우 사육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소 사육 기간이 대부분 24개월 미만이다. 한우는 마블링(육류를 연하고 육즙이 많이 나오게 하는 지방 부위)을 위해 30개월 정도 키운다. 사육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우의 마블링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사육기간을 줄이면서도 한우 고유의 맛을 살리는 쪽으로 품종 개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우 사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대안은 있나?

“외국산 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 수입 사료 운송 과정에서 탄소 연료가 소모된다. 우리 땅에서 나는 사료를 먹이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

1) 이춘재, “기사명”, 한겨레 신문, 수정 날짜, 찾아 본 날짜, URL주소.

다. 한 해 수입되는 조사료(건초, 짚)의 양이 무려 100만톤이다. 어마어마한 양이

다. 이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위에 기사에서 말하듯이 채식주의자에 반대 측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굳이 아이들까지 채식주의를 해야 하는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본론

위 기사들에서 말하듯이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아이들)들에게 채식주의가 아닌 극단 채식주의로 세뇌를 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육식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육식의 환경 파괴는 농자재, 사료생산, 가축생산, 도축 및 후처리,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생산의 5단계 전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별 탄소 배출량은 가축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인데 3대가축 (돼지 380~874, 소, 닭 374~1015 숫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선 소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덜란드 웨트레흐트대 코페르니쿠스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소 1kg의 육류를 얻어내는데 단계별로 최대 2227톤 (MTCO2)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소 한 마리(한 마리 무게 1톤기준에서)를 온전히 식품으로 소비할 때 최대 28톤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는 자동차 한대를 10년 간 운행했을 때 나오는 탄소량(53.8)에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만약 식단을 채식으로 1년 동안 식단을 조절한다면 한 사람이 탄소량 3000kgco2를 감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200만 명으로 넓혀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탄소배출량 (6억9760만t)의 0.86%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채식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빈말이 아닌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조셉 푸어 옥스퍼드대 박사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한 식품의 환경 영향 감소 논문에 따르면 먼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이 식품 생산에서 나옵니다. 그중 동물성 제품이 58%, 그중에서도 소고기와 양고기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다고 완전 극단 채식주의로 바꾸자는 말은 아닙니다. 채식위주의 식단을 짜더라도 우리 체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인 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성분표의 100g당 단백질 함량을 따져봤을 때 돼지고기의 2배가 넘는 단백질이 대두에 들어있어 단백질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네덜란드 '웨트르레흐트대' 코페르니쿠스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보고서

(Decarbonising meat: explo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meat sector)

Joseph Poore(옥스퍼드대 박사), Thomas Nemecek(스위스 정부산하 식품연구소)의 보고서  
농촌진흥청, 동아시아언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채식주의가 있다'라고 교육을 시켜야지 저렇게 세뇌를 시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환경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식단을 바꿔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스 배출로 인한 문제로 기사를 삼고 있으니 자동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봅시다. 2021년에 한국 환경 공단에서 만든 행사로 환경보호에 동

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실시하는 전국 소등행사로 저녁 8시 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행사로 "고요한 어둠 속 지구의 속삭임을 느끼자"라는 주제로 만든 행사입니다. 또 기업에서도 이마트는 매년 100억대 규모의 ESCO 사업을 하며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를 꾸준히 진행하고, 전국 약 50여 개의 태양광과 10여 개의 지열 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환경 공단 사이트나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페나 음식점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와 식당 등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은 연간 28억개, 국민 1인당 56개를 사용한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 규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용기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부 주도의 기준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의 제도 때문에 사용자와 가맹점은 이중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인 회수 장비처럼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만, 높은 기준을 넘지 못 해 중간에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카페 브랜드 매종쇼당과 협력해 1회용 플라스틱용기 회수기계를 완성했습니다. 국내 처음 선보인 신기술이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정부가 편의점과 제과점에 파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환경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3. 결론

결론적으로 아이들에게까지 채식주의를 강요할게 아니라 채식주의를 함으로써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만 알려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육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 한 마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렇게 높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일어나 택시를 타고 가는 제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채식주의를 강요할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아닌 우리 성인들이 나 하나쯤 이야기가 아닌 조그만 습관들을 고치거나 바꾸어 아이들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